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성경: 창세기 26장 1-5절

Tag:

1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창26:1-5)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투자 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투자 하였다.

이 투자의 특징은 신격이 특정 인격에게, 특정 개인이 신격에게 투자 한 것이다. 하나님이 독실한 아브라함에게 투자하셨다.

(투자란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시간이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에는 계약서가 있게 마련.

하나님은 계약서에 믿음과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 댓가로 번성과 복을 약속 하셨다.

계약서의 특징

*계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계약서는 일방적이었다. 왜냐면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특혜를 제공하시는 분이었고,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

종의 서약만 잘 이행하면 되었다.

*하나님으로서는 신실한 백성이 필요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길 원하셨다.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의무는(자격사항) 명령과 율례와 법규에 대한 겸손한 순종,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을 극복하는 것, 절대적이며 인격적이며 전능하시며 인자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다.

*아브라함 쪽에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투자한 셈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헌신, 충성, 경외, 순종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 그 자체시며,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며,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나를 알아 주시고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시며,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과의 특별한 관계는 모든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 해당한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인간의 아버지시다.

(세속적으로도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내가 누구와 절친인가가 무척 소중하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가?

-순전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 마치 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과 같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다.

-전도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일깨우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먼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며 방황하기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되었다. 그것은 악한 선택에 대한 마땅한 댓가다. 하나님은 우선 그들을 방치 하신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오실만한 핑계거리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찾아 오신다.

-물론 그가 마귀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믿을 때만 관계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감사 제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추수감사, 승진감사, 생일감사, 등등은 사실 부차적인 감사의 제목이다.

* ex)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형 (구약성경에 총 8회 기록됨)
(감사하라는 단어 37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07:1) -토라.

*esp 5절 말씀. (투자에 대한 인간 쪽 의무사항-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계약 계승;계약 자체가 후손에게 주는 복)

율례 (종교법;추카) 규정된 것. 하나님을 섬기는 법.

법도 (토라, 방향, 지시, 법, 가르침)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전통적으로 인정된 바른 길. 기독교적 가치관과 관련된 바람직한 법도.

명령 (계명;미츠바)-주로 '하지말라'는 명령인데, 사명과 관련된 명령.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 (삼손, 모세, Let my people go!)

십계명에는 이 세가지가 모두 담겨있다.

다른 족장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이삭의 이야기는 매우 평범하다. 그러나 이삭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고, 소위 법

도를 깨닫게 한다.

이삭에게 명령이 떨어진 때는 어려울 때이다. 어려울 때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이삭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무엇이 순종 하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복을 받는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보통 사람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아내를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며 살았던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야살의 책에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족장들을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정작 성경에서는 그들을 평범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이삭에 와서는 더한 모습이 보인다. 이삭은 주변의 박해 때문에 이리 저리 옮겨다니며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벨도 없는 자의 모습이고, 자존심도 없는 자의 모습이다. 나약한 모습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건강한 모습이다.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싸우려면 강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겨도 진 싸움이 되고, 양값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리 저리 쫓겨다니는 삶은 어차피 유목민으로서는 쫓겨가지 않아도 목초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셈 치면 그만이다.

군사력도 없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편리한 것은 없는 셈이다.

어차피 자기 땅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가나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원하셨기에 아직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하겠다고 판단하셨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흉년을 맞아 애굽으로 가야 할까보다 하고 고민하면서 우선 그랄이라는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명령하셨다. 이 계명은 미츠바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에 속한다. 이 계명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보편적인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제시하시면서 주시는 명령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마귀는 여러 가지 유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굳게하고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만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아무런 말씀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 하시면 곧 순종해야 마땅하다.

3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은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다. 아내로 인해서 곤란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기적같이 이삭을 도와 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

지만, 빼앗기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

물론 이삭은 성자가 아니었다.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기뻐하며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하지 않았다.

빼앗기고 나서 다시금 힘겹게 거처할 곳을 찾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중에 우물 터를 발견하고, 힘들여 우물을 뚫다.

그러는 중에 우물을 파는 기술이 늘었고, 우물 터를 발견하는 기술도 늘었다. 나중에는 뜻 밖에 샘물을 얻게 되는 횡재까지 하게 되었다.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그러는 중에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였고, 살림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리고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다.

맨날 이리 저리 쫓겨 다니는 인생이었지만, 어느날 보니 거부가 되어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괴롭게 해도 몇 년 지나고 나면 더 강성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와서 화해를 요청하고, 서로 공격하지 말 것을 맹세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 아멘.

감사의 제목

-나로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게 하소서. 그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게 하소서.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됨에 감사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찬양예배>

제목 : 회복 탄력성 성경: 이사야 6장

Tag:

1 옷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으로다 하였더라

6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짐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

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사6:1-13)

-황폐함을 위한 계시

-그들은 마땅히 소멸 될 것이다.

-회복 탄력성이 없는 성도는 도태 된다.

-이사야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

-아주 오래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율법주의자, 중독자, 회복탄력성이 없는자는 도태된다.

-중독은 왜 악하나?

-습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습관은 장점이 많다. 그 장점을 악에 이용한 것이 중독이다. 중독이라는 위험을 방지하는 명목으로 습관을 버려도 되는가?

-끊임없이 비판하는 자, 비판 하는 자, 저주하는 자, 분노하는 자, 실망하는 자, 질투하는 자도 악한 습관에 회복 탄력성이 회손된 자.

13. 십분의 일의 남아 있을 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 지독한 저주.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왜냐면 DNA가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회복 탄력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십분의 일이라면 조금이라도 기회는 있는 것.

-재빨리 모든 율법주의와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살 길.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치실 때 살아남는 법은 회복탄력성을 원상태로 기르는 것.

- 그러나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다.
- 원래의 DNA는 남겨져 있다.
- 젓붙임을 받은 가지들은 모두 잘려 나간다.
- 이미 회복 탄력성을 잃은 자들은 도태된다.
- 그러나 원 뿌리, 아직 그 원래의 DNA를 간직한 자들은 회복한다.
- 오동나무의 근성.

-주일예배(율례;종교적인 법) 추카

-찬양예배(법도;사회생활을 위한 법과 지혜) 토라

-십계명(명령) 미츠바. 나에게만 주시는 미션. 십자가. 희생.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됨. -복은 여기에서 비롯됨.